

109세 할머니 17번째 대선...19세 대학생 설레는 첫 투표

광주 투표소 이모저모

가족과 투표하며 민주주의 실천 진정한 어른 된 듯...생애 첫 투표 장애인이 존중받는 사회되길 바라 투표소 잘못 찾아 우왕좌왕 진땀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 날인 3일 광주시 357개 투표소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거쳐 6월의 '장미 대선'을 맞이한 시민들은 투표 용지에 새로운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담아 도장을 찍었다. 가족 단위로 찾아온 이들과 더불어, 휠체어를 끌고 한 표를 행사하러 온 이, 반려견과 함께, 아이와 함께 투표하러 오는 이까지 민주주의의 실천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109세 고령자들도 '힘 있는 한 표'=광주시 동구 지역 최고령 투표자인 김정자(여·109) 할머니는 올해도 변함없이 정당한 모습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21대 대선 본투표가 이뤄진 3일 오전 9시께 광주시 동구 계림1동제2투표소에는 올해로 109세를 맞은 김정자 할머니가 찾아와 느리지만 또박또박한 걸음으로 투표를 마쳤다.

1915년 11월 20일 생인 김 할머니는 인생 첫 투표인 1963년 제5대 대선 이후 17번째 대통령 선거를 맞도록 한 번도 빠짐없이 투표했다.

김 할머니는 "지난 17차례의 계엄령을 모두 경험했는데, 최근에 또 계엄이 일어났다. 다시는 국민을 두렵게 하는 계엄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광주를 포함한 대한민국이 청년들 직장 걱정고 노인들 건강도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라며 투표했다"고 했다.

딸 이종순 씨는 "어머니는 매년 선거 때마다 자식과 손주들에게도 투표의 소중함을 강조하신다"며 "뉴스 시청을 하루도 거르지 않으시고 남의 의견에 휘둘리는 게 아닌 본인의 소신을 갖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남구 진월동제1투표소에서는 백삼봉(103) 할아버지가 투표 행렬에 동참했다.

이날 넷째 며느리 주은자(65)씨, 외손녀 백시은(38)씨, 증손녀 최사인(14개월)양과 함께 투표소를 방문한 백 할아버지는 정부로부터 100세 기념으로 받은 '청려장'을 짊어고 입구로 들어섰다.

백 할아버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투표를 해왔다고 한다. 이날도 백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기표소가 있는 복지센터 2층으로 이동한 뒤, 익숙한 듯 회색 빛 자켓 안주머니에서 지갑 속 주민등록증을 미리 꺼내고 확인지에 직접 이름 적자를 적었다.

백 할아버지는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투표했다.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에게 표를 행사했다. 사는 동안 열심히 이웃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했다.

◇가족과, 반려견과 함께...한 마음으로 투표소로=광주시 북구 용봉동제7투표소에는 가족과 함께, 반려견과 함께 찾아온 이들의 발길이 잇따랐다.

이현주(57) 김정희(여·54) 부부는 큰 아들 이성현(24·전남대)씨와 목발 짚은 작은 아들 이성호

(22)씨와 함께 투표소를 찾았다. 이들 가족은 성호씨가 최근 축구하다 다리를 다쳐 입원해 사전투표를 하지 못했다가, 퇴원하자마자 함께 투표하러 왔다고 한다.

이현주씨는 "이번에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새로운 나라를 위해 가족끼리 똘똘 뭉치는 마음으로 투표했다"고 말했다.

성현씨는 "청년들이 살기 좋은 나라,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어른들도 일자리가 보장된 안정적인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소원했다.

황경순(여·55)씨는 예비사위와 딸 최동원(30)·고위화(여·30)씨 부부, 반려견 '레인'과 함께 투표소를 찾았다. 황씨는 "소중한 가족인 반려견 레인에게도 의미있는 투표를 행사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며 "딸이 곧 결혼하니 신혼부부, 청년들, 아이들이 잘 사는 나라를 꿈꾼다"고 웃었다.

아내와 아들, 딸 부부와 손주 등 6명이 한 자리에서 투표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천택(64)씨는 "선거는 하나의 축제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즐

기고 싶어 사전투표도 못하게 했다"며 "따로 사는 가족들, 늦잠자는 가족들 데리고 오늘 투표하러 왔다"고 웃었다.

◇'진정한 어른이 됐다' 생애 첫 투표 청년들=광주 곳곳의 투표소에서 '생애 첫 투표'를 한 광주 유권자들도 줄을 이었다. 이들은 "유권자로서 첫 발을 내디딘 것이 뿌듯했다", "진정한 성인이 된 듯한 책임감도 들었다"는 등 남다른 마음가짐으로 투표소에 발을 디뎠다.

대학생 정하진(여·19)씨는 광주시 광산구 이동동제7투표소(선운초)에서 생애 첫 투표를 했다. 투표소를 나선 뒤, 직접 인쇄해 온 투표인증용지를 든 정 양의 얼굴에는 생애 첫 투표의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정 씨는 "신중히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마음에 부모님과 대선 후보들의 토론 방송을 꼼꼼히 시청했다"며 "이번 투표를 계기 삼아 앞으로 선거에 꾸준히 참여해 유권자로서 권리를 누리겠다"고 했다. 유학생 신분의 첫 투표자도 있었다. 미국 보스턴

에서 학교를 졸업한 김찬우(23)씨는 최근 유학생 생활을 마치고 광주로 돌아와 북구 건국동제1투표소를 찾았다. 김씨는 지난 선거 때는 미국에서 유학을 하느라 투표를 못 했지만, 이번 대선에는 직접 투표를 할 수 있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고 했다.

김 씨는 "유학 중이었어서 이번에 인생 첫 투표를 했고 좋은 경험이었다"며 "우리나라에 시끄러운 일도 많아서 이번에는 꼭 투표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부정부패 없고 깨끗한 나라가 되면 좋겠다"고 소원했다.

김씨의 부모인 김민근(57)·김정자(여·55) 부부는 "아들과 같은 곳에 와서 투표하니 의미있고 자식이 성장해서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며 "앞으로 국민이 한 마음으로 지지할 수 있는 리더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했다"고 말했다.

◇휠체어 끌면서 "그래도 투표는 해야죠"=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면서도 소중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장애인들도 잇따랐다.



이영미(여·33·뇌병변장애 1급)씨는 활동보조사와 함께 이날 오후 광주시 북구 두암3동 제3투표소(두암종합사회복지관)를 찾았다.

매년 선거 때마다 꾸준히 투표를 해 왔다는 이씨는 해매는 기색 없이 자연스럽게 기표소에 들어갔다. 김금남(여·65) 활동보조사는 기표함 커튼 밖에서 휠체어를 손잡이를 잡아 주며 기표를 마무리할 때까지 기다렸다. 이내 활짝 웃으며 투표 용지를 들고 나온 이씨는 자신 있게 용지를 투표함에 넣었다.

매년 선거 때마다 활동보조사는 이씨에게 투표하는 날을 알려주고, 선거 후보자를 펼쳐놓고 후보 공약들 같이 살펴보고 어떤 후보를 고를지 고민한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이씨는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해 정책을 펼쳐 줄 사람을 뽑기 위해 공약을 세세하게 살펴본다고 한다.

이씨는 "장애인 정책이 늘 미미했지만 조금이나마 더 존중받고 편리하게 사는 세상일길 바라면서 후보자를 고르고 투표해왔다"며 "장애인 권리를 인정받고 장애인이 존중받는 평등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앗, 여기가 아니네...투표소 잘못 찾은 이들도 여전=투표 현장을 잘못 찾은 이들이 진땀을 빼는 사례는 올해도 반복됐다.

김성희(여·60)씨는 3일 광주시 남구 진월동제1투표소(진월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가 깜짝 놀라 발길을 돌려야 했다.

진월동제1투표소가 자신에게 지정된 투표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도보 1분 거리인 광주효덕초등학교(진월동제2투표소)로 가야 했던 것이다. 다행히 자기 투표소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터라 김씨는 급광 제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를 할 수 있었다.

김씨는 "당연히 행정복지센터가 제 투표소인 줄 알았는데 진땀 뺐다. 그래도 제 투표소가 바로 옆이라 다행이다"고 웃어보였다.

이날 오전 광주시 북구 용봉동제7투표소에서도 한 시민이 투표소를 잘못 찾아가기도 했다. 안내원으로부터 "주소지상 다른 투표소로 가야 한다"는 설명을 들은 그는 멧쩍게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투표소 찾다가 경찰 조사 받는 이들도="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이들도 잇따랐다.

광주시 동구와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3일 오전 9시 10분께 동구 산수2동 자원순환센터에 마련된 산수2동제1투표소에서 A(여·68)씨가 투표용지를 찢었다.

A씨는 기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후보를 잘못 찍었다"고 말하며 기표소 내부에서 투표지를 한 차례 찢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7시께 광주시 동구 지산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지산1동투표소에서 60대 여성 B씨가 투표용지를 훼손했다.

B씨는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뒤 "도장을 잘못 찍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선거관리원 앞에서 용지를 찢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별취재팀=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서민경 기자 minky@ /사진=나명주 기자 mjna@·김진수 기자 jeans@

“마지막 대통령 뽑는 마음으로” 산길 뚫고 투표소로

산 넘고 물 건너 시골마을 어르신들도 한 표

광주의 시골마을, 자연마을에서도 산길을 건너 투표소를 찾아온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자연마을은 노인 비율이 높는데다 투표소까지 가려면 산을 넘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의 차를 빌리거나 굽은 허리도 산길을 뚫고 걸음을 재촉했다.

등이 90도로 굽어진 백순애(여·88) 할머니는 광주시 북구 건국동제3투표소(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투표를 하고 "투표하고 나니 개운하다. 20분 걸어 집 가는 길도 금방이겠다"며 환하게 웃었다.

밭에서 마늘을 캐다 투표하러 왔다는 백 할머니는 "한 표 차이로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투표를 놓칠 수 없다"며 "우리나라를 위해 일 잘 할 사람으로 뽑아야 한다. 젊은 사람들이 직장 잘 다니고 아이 많이 낳는 건강한 나라가 되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했다.

건국동 금당마을에 거주하는 선순덕(여·85) 할머니는 사위 차를 타고 15분 걸려 투표소에 도착했다. 허리, 무릎, 손목 등 안 아픈 곳이 없어 자평이에 의존할만큼 거동이 불편하지만, '생애 마지막까지 투표는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투표소를 찾은 것이다. 선 할머니는 "나이도 많아서 다음 선거 때 찍을 수 있을지 모른다"며 "내 자식, 남의 자식이 다 귀하니깐 다 같이 잘 살고 노인들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며 웃었다.



사위와 함께 북구 건국동제3투표소를 찾은 선순덕 할머니(오른쪽).

인근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홍보금(여·89) 할머니도 딸의 부축을 받으며 투표장에 왔다. 휴일을 맞아 어머니와 점심 식사를 한 후 할머니 자녀들이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을 알고 모시고 온 것이다. 홍 할머니의 딸 박금례(54)씨는 "엄마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다리 힘이 없어서 건강상 5년 후에는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대통령을 뽑는 마음으로 오셨다"고 말했다.

이주민도 한국사회 일원...다음 세대 위해 투표 행렬

'한국은 제2의 고향' 이주 여성들도 한 표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3일, 고려인마을이 있는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투표소에는 귀화 이주 여성들의 투표 행렬이 이어졌다.

각기 다른 이유로 한국에 들어와 삶을 꾸려온 이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더 안전한 사회가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필리핀 출신으로 지난 2014년 귀화한 이수진(여·48)씨는 이날 오후 광주시 광산구 월곡2동행정복지센터 1층에 마련된 '월곡2동제1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이씨는 하남산단 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용접일을 하고 있다. 그가 이 일을 한 지는 어느덧 12년이 넘었다.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뒤 현재 홀로 딸 셋을 키우는 이씨는 "별서 큰딸은 26살, 둘째는 24살, 막내는 중학생 15살이다. 휴여 다치지 않을까 엄마로서 당연히 늘 걱정하게 되는 것 같다"며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했다. 이 사회가 젊은 사람들에게도 일할 기회를 주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투표소를 찾은 또 다른 귀화 이주민 베트남 출신 김정민(여·37)씨는 어린 딸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

한국 문화와 생활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던 김씨는 스무살이 되자마자 광주로와 남부대에서 유학생활을 했다. 현재 그는



딸과 함께 광산구 월곡2동제1투표소를 방문한 귀화 이주민 베트남 출신 김정민(여·37)씨.

남부대에서 베트남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김씨는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좋아서 오게 됐는데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돼서 너무 좋다. 딸이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엄마가 투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이런 걸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다"며 "이주민도, 한국인도 다 같이 편하게 일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내 딸이 살아갈 세상이 더 공평하고 안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